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317

JCCT 2022-11-38

코로나-19 유행 시기 신규 보건교사의 교직 적응에 대한 FGI연구

An FGI Study on the Adaptation of Beginning Health Teachers During the COVID-19 Era

최성광*, 최미정**

Sung-Kwang Choi*, Mi-jung Choi**

요약 이 연구에서는 신규 보건교사들의 코로나-19 시기에 교직적응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해결과정,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J도에 발령받은 3명의 신규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FGI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코로나-19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전화와 매일의 학교 현황보고 과정에서 특히 학부모들과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후에는 보건실 업무를 혼자서 고민해야 한다는 부담감,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건 수업의 어려움, 응급상황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신규 보건교사들은 교직 적응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보건교사 소모임, 유튜브 등을 통해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교직 적응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교육청 차원에서 신규 보건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연수가 필요하고, 보건수업과 관련한 수업 콘텐츠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어 : 코로나-19, 신규 보건교사, FGI연구, 교직 적응

Abstract In this study, three health teachers assigned to J-do were analyzed through the FGI research method to find out the difficulties, resolution process, and implications of new health teachers in adapting to teaching during COVID-19.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were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with parents, especially in the course of numerous calls and daily school status reports in the course of handling infectious diseases. After getting used to the COVID-19 work to some extent, beginning health teachers were burdened with having to think about health room work alone, difficulties in health classes for various students, and the burden of showing expertise as the only medical personnel in emergency situations. Second, new health teachers continued to share and communicate related information through online health teacher groups and YouTube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teaching. Third, this teaching adaptation process suggests that specific training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new health teachers is needed at the education office level, a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infrastructure such as class contents related to health classes.

Key words : COVID-19, Beginning Health Teacher, FGI Research, Adaptation to Teaching

*정회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제1저자)
**정회원,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일

Received: September 30, 2022 / Revised: October 27, 2022
Accepted: November 3, 2022
**Corresponding Author: tinercmj@daum.net
Dept. of Nursing, Chosun Nursing College, Korea

1. 서론

2020년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2022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활 습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1-2].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교육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 3월 개학이 4월로 미뤄지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학교는 온오프라인 병행교육과 학교방역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많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교육이라는 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축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에서 교사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코로나-19 환경에서 학교의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적응은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건교사들은 갑자기 주어진 새로운 감염병 관련 업무로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했으며[3], 행정적인 절차의 미숙으로 보건교사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연구보고[4] 등을 통해 보건교사들의 어려움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초임 보건교사가 경험한 코로나-19 상황은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학교적응에 대해 Veenman[5]은 예비교사에서 신규교사로의 변화를 ‘전이충격(transition shock)’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신규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으며, Katz[6]는 교사의 발달단계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초기 교사들이 경험하는 단계를 생존기로 묘사하여 불안감 속에서 생존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로 기술하고 있다. Lecey[7] 역시 신규교사가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은 실로 어려운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전략을 사용하여 학교 현장의 역할, 태도, 가치 등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학교의 가치에 대해 상반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상황의 요구에 순응하기도 하며, 학교상황의 장애요소와 충돌하면서 허용되는 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신규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학교에 들어오지만 기피업무 대물림과 격무 때문에 교사로서 회의감이 늘어 힘든 임용교사를 통해 합격한 교사를 포기하기도 한다는 보도[8]를 통해 신규교사의

적응이 중요한 연구문제를 알 수 있다.

국내의 신규교사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로 임성만, 양일호, 김성운[9]은 교사들은 경력에 따라 온라인 수업 정책 만족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정부 또는 교육청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저경력 교사일수록 온라인수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송유란[10]은 중학교 신규 교사의 교직 적응 사례 연구에서 교직 적응과정에서 신규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교과지도, 학급경영, 생활지도, 업무분장, 관계 맺기 영역으로 접근하여, 신규교사들은 특히 교과지도 영역에서 수업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 교과 지식의 부족으로 곤란함을 겪었고, 업무분장 영역에서 업무의 생소함, 업무처리 시간 부족, 학교교직원과 협조 부족으로 교직생활 적응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관계 맺기 영역에서 관리자와의 신뢰와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은진[11]은 초등 신규교사의 교단갈등 연구에서 신규교사는 동료교사, 관리자, 학부모와 갈등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으며, 갈등에 대한 의미부여나 해석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었을 때는 교육에 대한 회의감, 스스로가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겨지거나 불신이나 불안감, 수동적 태도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 코로나-19 유행 시기 보건교사에 대한 연구로 임미라[4]는 코로나-19 유행 시 보건교사의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지식, 감염관리 태도, 직무스트레스, 학교조직문화를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보건교사의 감염관리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보건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의 관리정도가 더 높을수록 코로나-19 감염관리 수행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학교조직문화가 코로나-19 상황,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한 보건교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증가하는 감염병 관리 업무 수행상황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협조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조아람[12]은 산촌 중학교 보건교사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대응 사례 연구에서 보건교사들은 일반적인 보건교사의 업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계획 수립 및 관리조직 업무, 코로나-19 관련 연수 및 교육, 방역 물품과 시설관련 업무, 학교 상황 보고 및 교외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피로감과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한 농산 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감염병 대응 경험 이 부족하고 환경 조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에서 보건교사의 역량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안다라[13]는 보건교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에서 코로나-19 학교현장 대응 운영과정에서 업무분장표는 작성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학교 공동체 모두의 방역이 아닌 1인 보건교사에게 업무가 몰리는 구조가 되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으며,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이 무시된 채 행정업무 처리가 주된 역할로 부각되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업무로 고통과 답답함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여 보건교사가 느끼는 업무의 강도와 스트레스가 상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신규 교사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어려움이 다양한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보건 교사들이 COVID-19 유행 시기 동안 겪는 가중된 업무 스트레스는 신규 보건교사들에게 교직적응에 있어서 다른 일반 신규 교사들이 경험하는 교직적응과 공통되는 점과 다른 점들이 있는지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시대 신규 보건교사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신규 보건교사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셋째, 코로나-19시대 신규 보건교사들의 교직적응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초점집단면담(FGI)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시대 신규 보건교사들이 경험한 학교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FGI)을 적용해 진행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은 대표적인 질적연구방법인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연구방법이다. 초점집단면담은 집단면담이기 때문에 심층면담과 같은 성격도 있지만, 참여자들이 여러 명으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참여관찰적인 면도 있다. 초점집단면담은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특정 구성원들을 선택해서 만든 조작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통제가 가능하며, 참여자들 간의 언어행위와 상호작용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14].

초점집단면담(FGI)은 그룹 면담을 통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방법이다. 초점집단면담은 특정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관찰이나 개별 면담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량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개별 면담보다 풍성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그룹면담의 맥락 속에서 진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15]. 집단 속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이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는 개별 면담보다 더 솔직하고 반성적인 반응을 이끌어 줄 수 있다[16].

초점집단 구성은 4명에서 12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명이 적합하다고 보지만, 연구자에 따라 3명이 적당하다는 주장도 있다[17]. 특히 참여자간 토론을 통해 주제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룹을 소수로 구성할 수도 있다. 초점집단 인원 구성은 개별 연구의 특성에 따라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인원을 연구자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18].

이 연구에서 신규보건 교사의 교직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해 초점집단 구성을 3명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소수의 연구참여자가 한 주제를 내밀하고 깊이 있게 다루면서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초점집단을 동질적 그룹(homogeneous group)으로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맥락의 사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다[19-20].

초점집단면담은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에 대한 다각화(triangulation)를 통해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인다. 즉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제공하는 자료는 그 자체로 다각화 과정을 거치며,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검증해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학교환경에서 신규 보건교사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다층적으로 나누며 수집된 자료를 일관된 형태로 분석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을 활용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이 연구의 주체가 신규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동일한 경력, 동일한 지역에 발령을 받은 신규 보건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A,B,C 보건교사 모두 J도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2022년 3월 1일자 발령을 받았으며, 읍면지역에 위치한 6~8학급의 소규모 학교로 발령받았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nts	Year (Career)	Work Place	School Level	Sex	Class Size
School Nurse A	25(0.0)	J-do	E. S	Female	8
School Nurse B	31(0.0)	J-do	E. S	Female	6
School Nurse C	30(0.0)	J-do	E. S	Female	6

E. S: Elementary School

면담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및 절차, 비밀 보장 등을 안내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녹음 등에 동의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기호화하였고 진술한 내용 및 일체의 자료는 연구 종료 후 즉시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표 2. 초점집단면담을 위한 질문

Table 2. Focus Group Interview Questions

Category	Contents
Introduction ques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w is school life these days?
Conversion ques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 there any difficulty adjusting to school life?
Main ques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at is the difficulty of becoming a health teacher in the COVID-19 era? What is the difficulty of becoming a health teacher? How can you overcoming the difficulties?
Closing ques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 you think you are adjusting well as a health teacher in COVID-19?

자료 수집은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그룹 및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인별로 총 3~4회의 면담 기회를 가졌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면담 내용 중 의미 있는 내용을 기록하며 그때 나온 단어 및

생각들을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검증받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을 위한 질문은 Krueger와 Casey[21]가 제시한 질문 방식과 과정을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신규 보건교사의 적응에 대한 연구로서 선행연구 및 자료 등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분절된 지식과 불충분한 선행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과 면담 즉시 내용을 전사하여 연구참여자들끼리 전해준 생생한 분위기와 주요 내용을 자료에 담고 이를 분석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면담 당시 기록한 주요 핵심 단어와 현상의 맥락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단어, 어구 등을 표시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의 면담과정과 이들의 경험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당한 주제어를 선정해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의 전과정을 공동연구자와 교차검증하였고, 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검증하는 다각화(triangulation) 기법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III. 코로나-19시대 신규 보건교사의 학교 적응

1. 코로나-19 속의 학교 적응: 수습 통의 전화와 헛갈리는 학교생활

1) 수습 통의 전화로 정신없는 첫 주

연구참여자들인 보건교사 A,B,C 모두 3월 1일에 J도 읍면지역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발령받은 3월 첫 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학교가 있어 보건교사로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염병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 보건교사는 수습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으며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교직원, 학부모의 전화를 받게 되니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전 코로나가 첫 주에 학교에 확 터져가지고, 그때 발령받고 첫 주에 학교에 제 연락처가 비상연락망으로 배부됐는데, 주말에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 거의 모든 여러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전화가 정말 수습 통은 온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전화오고 하나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건교사 A)

갑자기 교장, 교감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지금 학교로 나올 수 있냐고 해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 선생님이 계셔서 저까지 교장실에서 한 시간 회의하고, 그날 저녁에 학부모님들께 전체 문자 들렸어요. (보건교사 C)

대학에서는 교직과정을 통해 예비보건교사들에게 전공교육과정 이외에 교직이론과목으로 12학점, 교직소양과목으로 6학점, 학교현장실습 4학점의 총 2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갖게 되지만 실제적인 학부모와 의사소통이나 교장, 교감과 의사소통은 신규보건교사에게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같이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학교는 보건교사와 중요한 현안을 의논하고 싶어 하지만, 대학을 갓 졸업하고 교사로서 시작한 첫 주의 일들은 신규 보건교사에게 당황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2) 매일 매일의 학교 현황 보고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교 내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고, 학교장은 담당자와 함께 감염예방 활동을 총괄하며, 학교 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12]. 이에 의하여 보건교사는 확진자 발생상황을 담임교사들로부터 수합하여 교감, 교장선생님께 보고해야 하는데, 학교의 선생님들도 학교의 분위기도 모두 낮은 신규보건교사들에게는 그와 같은 행정처리도 어렵게 느껴졌다고 한다.

저는 전교 학생현황을 다 파악해야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빨리 안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전 모든 반을 일일이 체크해야 해서….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어요.(보건교사 A)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확진자 발생현황을 체크해야 하는데, 그걸 주말에도 해야하는 거예요. 주말에도

학교 일에 계속 긴장해 있는게 힘들더라고요. (보건교사 B)

신규 보건교사들은 아직 학교선생님들과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아 확진자 현황파악을 부탁하는 것도 어려우며, 주말에도 학생들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곤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업무와 개인생활을 엄격히 구분하기를 희망하는 MZ세대에게 더 큰 어려움일 것이다.

3) 학부모들과 관계의 어려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의 방침이나 확진자 현황에 민감하게 지낸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는 학교의 방역대책이나 확진자 발생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보건실에 전화하여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규보건교사들은 학부모들과 관계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한다. 다음 대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님 전화가 와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빨리 안 알려주냐? 집에서는 걱정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체 상황 보고를 학부모들에게 해달라 하시면서 계속 날마다 전화가 왔어요. (보건교사 C)

학부모님들이 학교에다 전화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보건소나 그런 데다 전화해서 00초등학교가 지금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맞느냐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대하기 힘들었어요. (보건교사 B)

코로나-19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불만 섞인 학부모들의 질문과 다른 학교와 비교하는 학부모들과의 의사소통은 비단 신규보건교사들뿐만 아니라 중견교사에게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최근 핵가족 중심의 현대사 회구조와 개인주의의 확대로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할 것이다.

2. 보건교사로서 첫걸음: 처음부터 시작하는 보건실 정비와 낮선 보건업무

1) 보건교사가 처음인 학교 발령

보건교사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관리 업무 외에도 수업과 일반적인 보건실 행정업무 등이 있는데, 발령받은 학교가 처음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된 경우 신규보건교사는 어려움을 더 겪고 있었다.

저희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된 것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학교 보건교사로 처음이어서 진짜 보건실에 약품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진짜로 간단하게 다쳤을 때 쓸 수 있는 밴드정도만 있는 거예요.(중략) 그래서 얼마 전(3월 2주)에 약품을 싹 준비했어요.(보건교사 A)

제가 발령 난 학교는 그러니까 원래 반이 보건실이라고는 있었는데 거의 창고였나 봐요. 거기 이제 침대만 하나 있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어서 저는 한 2주간 진짜 있을 곳도 변변치 못했어요. 가서 한 일이 먼저 청소부터 싹하고 보건실에 쓸 만한 가구 갖고 놓고 그랬어요.(보건교사 B)

신규 보건교사로 발령받은 곳에 전임자가 있는 경우는 그나마 전임자와 전화통화로 보건실 현황 파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A와 B교사가 발령받은 학교는 전임자가 없던 곳이어서 보건실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며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코로나-19관련 일까지 해야 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처음으로 사용하는 나이스와 보건 공문처리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보건교사는 대학 교직과정의 ‘교직실무’,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통해 보건교사 업무에 대해 배우고 기본적인 공문작성, 나이스와 에듀과인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신규교사 연수과정에서도 공문처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본인이 업무에 책임을 지고 학교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얻는 과정은 실수하기 쉽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인 신규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신규보건교사 역시 공문작성과 같은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것은 다음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11].

제가 보고해야 할 공문이 있었는데, 처음에 나이스

(교무업무처리시스템)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몇 번 고민하다가 교무실에 가서 여쭙보고 공문(업무)처리를 했어요.(보건교사 C)

나이스도 그렇고 에듀과인으로 물품 신청하는 것도 어렵고, 선생님들은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보건교사 B)

신규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속하겠지만, 교사는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업무처리를 해야 할 일이 많아 나이스와 에듀과인 같은 시스템을 통한 기안작성과 물품구입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이후 신규 보건교사의 적응

1) 물어볼 사람이 없어 아쉬운 업무

2022년 3월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발생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5, 6월이 되면서 점차 감소세로 전환하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면 수업도 증가하게 되었다. 5, 6월이 되면서 신규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3월에 비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업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5월에 전체 학생 건강검진 안내 및 결과를 요청하는 일이 있는데, 학생들이 간혹 결석하는 경우 담임 교사에게 부탁하고 결과를 수합하는 일이나 흡연 예방사업과 같은 보건업무 추진과정에서 동료교사 또는 학교 관리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면 또 학부모님께 안내해 주시고 하는데 그게 요즘 스트레스예요. 학생들 전체가 다 마무리돼야 건강검진 기관 쪽에서 저한테 결과를 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아직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니까 부탁드리기가 좀 어려워요.(보건교사 A)

학교에서 흡연 예방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비로 100만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업체를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행사나 활동할 만한 것을 계획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처음이니까 주변에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보건교사 B)

학교에서 보건교사는 1인이기 때문에 보건실 사업운영이나 업무는 본인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송유란[10]의 연구와 같이 신규교사가 학생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통하는 대상은 동료교사이기 때문에 동료와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맺기가 잘 되었을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며,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학교적응의 또 다른 갈등요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2) 잘하고 싶은 보건수업

코로나-19의 급했던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신규교사들은 보건교사로서 수업에 관심을 갖고 동시에 더 좋은 수업을 하고자 고민하고 있었다. 특히 신규교사들 중 코로나-19로 4주 학교현장실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2주의 온라인실습, 2주의 현장실습(학생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으로 면대면 수업 기회가 적어 수업에 자신감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아쉬움이 면담과정에도 드러났다.

저희는 코로나로 교생실습을 2주 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막상 여러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려니 힘들어요. 성교육 같은 경우 고학년은 잘 했는데, 저학년은 막 장난처럼 진행돼서 수업 끝나고 많이 아쉬웠거든요. (보건교사 C)

저는 저희학교는 보건선생님도 수업공개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몇 달 남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워요. 아무래도 일반선생님들보다는 좀 자신이 없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보건교사 B)

일반적으로 교사의 업무는 크게 교과지도, 학급경영, 생활지도, 업무분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10]. 이들 중 코로나-19상황에서 신규보건교사는 먼저 보건교사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이 급선무였으며, 학교가 안정화되자 교과지도에 관심을 갖고 수업을 고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보건교사의 수업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하겠다[12].

3)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부담감

보건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및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의료인으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군이다. 따라서, 일반 학생이나 교직원과 상담 시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야 하는데, 임상경험이 없거나 근무경력이 적은 신규 보건교사는 응급상황 대처와 관련하여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학생이 배가 아픈데 여기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 건지 위치에 따른 차이를 물어보셨어요. 그때 저도 그걸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너무 애매하니까 명쾌하게 답을 못한 것 같아요. (보건교사 A)

제가 신규라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건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데 혹시 제가 답을 정확히 못 할까봐 걱정돼요. 또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학교 때 보던 간호학 책을 학교에 가져왔어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건교사 B)

간호학을 전공한 예비보건교사는 기본적으로 1,000시간의 임상실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졸업 후 병원에서 몇 년 혹은 몇 개월 동안의 간호 경험을 갖고 보건교사로 임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건교사 임용시험에서는 별도의 임상경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임상경험이 없이 보건교사로 임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보건교사가 학교현장에 필요한 응급처치 교육을 반복적으로 이수하고 지속적인 연찬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신규보건교사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보건교사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그와 관련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4) 보건교사로서 연찬

신규 보건교사로서 궁금한 것이나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온라인을 통한 보건교사 소모임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인터넷 검색, 유튜브를 통해 보건업무나 수업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으며, 학교 내의 소모임보다 온라인을 통한 소모임에서 보건관련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건교사가 거의 자율적이어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좋으면서도 이제 학교 내에서 물어볼 사람은 없으니까, 보건 선생님들끼리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머리 맞대고, 서로 공유하고 해야지요. (보건교사 A)

신규 선생님들 단톡방이 제일 활발하고요 거기서 서로 질문하는 게 많으니까, 그 외에 OO지역에 그냥 보건 교사방이 있던 한테, 거기는 보통 주로 공지사항 같은 것 안내해주는 것 빼고는 딱히 질문은 별로 안 해서(중략)... 저는 유튜브 같은 거나 SNS 같은 데서도 많이 찾아봤었어요. 유튜브에서도 되게 잘 정리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건교사가 뭐 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셔서 궁금할 때 자주 찾아봐요. (보건교사 B)

Darling-Hammond[22]와 Randi와 Zechner[23]는 신규 교사의 발달과 관련하여 성장하는 교사는 폭넓게 독서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연구에 참여한 신규보건교사들 역시 온라인 소모임 인터넷 검색, 유튜브를 통해 교사로서 성장하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근무하는 지역이 읍면 지역이 소규모 학교이며 근무지의 특성상 대면 연수의 기회가 적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은 권장할 만 것이라 하겠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시대 신규 보건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FGI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발령받은 첫 주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아직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숙한 상황에서 학부모, 일반교사들의 수습 통의 전화와 매일매일의 학교 현황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학부모들과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코로나-19 업무 외에도 보건교사가 처음인 학교에 발령받아 보건 실 및 약품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환경에서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코로나-19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후에는 보건실에서 수행되는 연간 보건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학교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1인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해야 한다는

부담감,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 응급상황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보건교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보건교사 소모임, 유튜브 등을 통해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임미라[4]의 연구결과에서 코로나-19 유행시 보건교사의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학교 구성원의 협조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조아람[12], 안다라[13]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학교현장 대응 시 학교 공동체 모두의 방역이 아닌 1인 보건교사에게 업무가 몰려 외로움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 것이었다. 한편, 송유란[10]의 연구에서는 신규교사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의 관리자와 동료교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요청한다고 하였으나, 보건교사는 업무의 특성상 학교내의 관리자, 동료교사 보다 학교 밖의 보건교사들과 SNS 또는 온라인 소통을 통하여 필요한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시대에 신규 보건교사의 학교 적응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일반적인 신규교사의 적응과정 외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 관리업무가 주된 스트레스가 된 것이다. 본래 감염병 관리업무는 보건교사의 담당업무 이기는 하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교육부는 학교 안에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하라고 하였으나, 실제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는 곳은 불과 34%에 불과하였으며[3], 보건교사가 학교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학교도 많아, 신규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신규 보건교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직생활에 적응하면서 요청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 신규 보건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연수를 필요로 했다. 보건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신규교사 연수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보건교사만을 위한 구체적인 연수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시기에 실질적인 연수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 교육청 주관으로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연수'가 일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신규 보건교사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학생 감염병

유행 대응 모의훈련 실습과 같은 구체적인 연수가 실시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가 온라인에 탑재되어 필요시 언제라도 자료에 접근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감염병 관리 외에도 학교의 전문의료인은 보건교사 1인이기 때문에 보건실 연간운영계획이나 보건실 사업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조직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보건교사는 보건실 업무 외에도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수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수업과 관련한 수업 콘텐츠 등의 인프라를 개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Katz[6]는 교사의 발달단계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신규 교사들이 경험하는 교직 적응단계를 생존기로 묘사하여 불안감 속에서 교사로서 생존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로 기술한 바 있으며, 이 시기를 잘 지내고 나서 각각의 학습자 행동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교사로서 의미를 갖고 심층적인 추상적 질문을 하는 교사 중기나 후기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Darling-Hammond[22]와 Randi와 Zechner[23]도 연구결과에서 교사의 성장을 위해 잘 선택된 과제와 적절한 스캐폴딩 그리고 지원적 학습 환경 등의 조건이 마련된다면 교사의 성장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신규교사는 새로운 교직사회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교직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자 다른 어떤 시기보다 열의를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신규 보건교사가 학교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수체계가 개선되고, 관련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신규 보건교사의 수업과 업무에 관한 지식은 더 성장할 것이며, 교육현장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H. J. Yang.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emo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elf-elasticity of college freshmen in COVID-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6(3), pp.75-81, 2020. <https://doi.org/10.17703/JCCT.2020.6.3.135>
- [2] B. Hussin & N. Niknejad, "Thematic analysis for classifying the e-learning challenges and the suggested solutions: The unusual era of the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13(4), pp.79-89, 2021. <https://dx.doi.org/10.7236/IJIBC.2021.13.4.79>
- [3] O. Y. Woo, "Challenges of the new corona-19 and health education-based preventive cooperation system",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26, pp.81-135, 2020.
- [4] M. R. Yim, Factors affecting infection control of school health teacher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Gyeongsang National Univ.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21.
- [5] S. Veenman, "Perceived problems of beginning teacher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4(2), pp.143-178, 1984.
- [6] L. G. Katz, "Developmental stages of preschool teacher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73(1), pp.50-54, 1972.
- [7] C. Lacey, The Socialization of Teachers(RLE Edu N), Routledge, 2012.
- [8] G. W. Wang, "Why do new teachers leave school?", The Kyunghyang Shinmun(2019.05.20.)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1905101718331
- [9] S. M. Yim, I. H. Yang, & S. W. Kim,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field educa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based on the teach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 pp. 371-400, 2021.
- [10] Y. R. Song, A case study on the professional adaption of beginning middle school teachers.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2016.
- [11] E. J. Kim, An experiential analysis on the relational conflict of the begin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7.
- [12] A. R. Cho, "A case report of the COVID-19 outbreak response by a middle school health teacher in a mountain village", Journal of Korean Acad Rural Health Nurs Vol. 16 No. 2, 54-59, December, 2021. <https://doi.org/10.22715/jk arhn.2021.16.2.54>
- [13] D. R. An, A narr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school health teachers responding to COVID-19 Pandemic in schools. Kyonggi Univ.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22.
- [14] T. L. Yo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for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Seoul: Arche, 2005.
- [15] D. Morgan, Focus group as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1997.

- [16]B. Gibson, "Learning from focus group discussions".
In Johnson, E.(eds.), *Teachers' narrative inquiry as professional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 2022.
- [17]G. B. Kim, K. L. Shin,, S. S. Kim, E. K. Yoo., & N. C. Kim,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Hyeonmunsa, 2005.
- [18]J. A. Hatch,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Suny Press, 2002.
- [19]M. Niessen, *Interpretative methodologie*, Munich: Fink, 1977.
- [20]U. Flick,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Sage, 2022.
- [21]J. A. Hatch,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2008.
- [22]L. Darling-Hammond, "How teachers education matters?", *Journal of Teachers Education*, 51(3), pp.166-173, 2000.
- [23]J. Randi & M. Zeichner. "New visions of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In Smylie, M. A. & Miretzky, D.(Eds.), *Developing the teacher workforce: 103rd year book of NSSE*(pp.180-227), Chicago: Univ. of Chicago, 2004.